

직프리트 베렌트 기타 연주회

SIEGFRIED BEHREND

SIEGFRIED FINK : 타악기
BELINA : 민요
CLAUDIA BRODZINSKA : 노래



GOETHE-INSTITUT
주최: 駐韓獨逸文化院
韓國클래식기타音樂人協會

國立劇場에서
1971. 9. 8. 낮 3시
밤 7시

인 사 말



Wer einmal ein Konzert von Siegfried Behrend besucht hat, der weiß, daß er einen Meister hören konnte, dem auf seinem Instrument schlechterdings nichts mehr unmöglich ist. Was für Nicanor Zabaleta die Harfe bedeutet, für Maurice André die Trompete oder für Siegfried Palm das Violoncello, das ist für Behrend die Gitarre: ein Instrument, das unter den Händen des Meisters mit un-

fehlbarer Präzision und vollkommener Selbstverständlichkeit hervorbringt, was immer die Komponisten, die zeitgenössischen zumal, ihm abverlangen.

Wenn Behrend, seit 1965 nun zum dritten Mal, wieder in Korea spielt, so ist dies vorab den koreanischen Gitarrespielern und Liebhabern dieses aparten Genres zu verdanken, über deren herzliches Willkommen und hervorragendes Können er bei seinem letzten Besuch so dankbar begeistert war, daß er spontan eine baldige Rückkehr, diesmal mit Meisterkursen für die koreanischen Gitarristen plante.

So ist das Seouler Behrend-Programm 1971 weit umfassender und vielfältiger: einmal umgreifen seine Konzerte die Gitarren-Literatur eines halben Jahrtausends - von den Lautentabulaturen des frühen 16. Jahrhunderts bis zu jüngst entstandenen Kompositionen von Sylvano Bussotti und Günther Becker -; sie beziehen, unter Mitwirkung von Claudia Brodzinska, Belina und Professor Siegfried Fink, dem bedeutenden deutschen Schlagzeug-Protagonisten, die menschliche Stimme und schließlich - neuartig für Korea - konzertante Werke für Gitarre und Perkussionsinstrumente mit ein (darunter Karlheinz Stockhausens "musikalische Doktorarbeit", den "Zyklus für einen Schlagzeuger") - Andererseits sind aber die Konzerte selbst nur Ergebnis: die wesentliche Arbeit passiert in den Gitarre- und Schlagzeug-Meisterkursen, die Behrend und Fink mit ihren koreanischen Kollegen durchführen.

Es sei mir erlaubt, hier allen danken, die zum Gelingen der Konzerte beigetragen haben, vorab den beiden Mitveranstaltern, der Korean Classic Guitar-Society und dem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Namentlich darf ich an dieser Stelle Herrn Dr. med. Kang U Sik, den Vizepräsidenten der Guitar Society, nennen, der in selbstloser Bescheidenheit die Hauptlast der Vorbereitungen übernommen hat und sich gegen diese namentliche Erwähnung gewiss sträuben wird; und schließlich gilt mein herzlicher Dank den Besuchern der Konzerte, die durch ihr lebenswürdiges Interesse das Unternehmen in jeder Weise rechtfertigen.

Hans Sallmann



SIEGFRIED BEHREND

지프리트 베렌트는 당 38세, 베를린 클린트보르트 샤르벵가 콘서버토리에서 작곡과 고전 음악을 전공하였다.

1951년 베를린에서 테뷰리사이들을 갖어 대 성공하였다. 그후 클래식 기타의 세 기수로 전세계를 연주여행.

베를린 필하모니와 협연 아란제스 콘체르트 등 디스크 발행. 1965년, 1968년에 이어 세 번째 내한임.

현재 베를린 음악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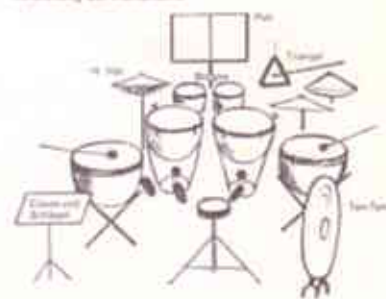
SIEGFRIED FINK

지프리트 핑크는 당 43세 튀백의 호나니에 사사하고 타악기를 전공, 오케스트라 원 자리에 있는 튜파니를 앞으로 끌어올린 업적을 내었다.

또 바이에른 주립 콘서버토리를 전위적 타악기 음악의 중심도시로 만들었고 그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악기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

하노마 음대 및 뷔르츠박 음대교수.

Aufstellung des Instrumente



BELINA

벨리나 여사는 당 35세, 세계 백여개 국을 무대로 한 민요가수, 1965년에 내한연주, 아프리카 연주에는 휘바이저 박사로부터 복제 코끼리를 기증받았으며 바담상송 칭호도 받음 그가 세계무대에서 질한받는 곡중에는 아리랑도 들어있다.



CLAUDIA BRODZINSKA-BEHREND

클라우디아 브로진스카 베렌트 부인은 당 34세, 베를린의 막스라인하르트에서 힐데퀴르버에 사사, 엘레미 탈렌트를 거쳐 아방가르드 선구자가 되었다. 1968년에 부군 베렌트와 같이 내한했었다.

ERSTES KONZERT, 8. SEPTEMBER 1971, 15UHR

SIEGERIED BEHREND, Gitarre
CLAUDIA BRODZINSKA, voce humana
TEILENHMER DES GUITAR WORKSHOP SEOUL 1971

J. S. Bach
1685—1750
PASSAGGIO, PRESTO, SARABANDE UND BOURREE
AUS DER LAUTENSUITE E-MOLL, BWV 996

Fernando Sor
1778—1839
VARIATIONEN ÜBER EIN THEMA VON MOZART OP. 9

Niccolo Paganini
1782—1840
SONATE C-DUR FÜR GUITARRE OP. 25
Allegro
Andante
Allegro

Heitor Villa-Lobos
1887—1959
PRELUDIO UND ESTUDIO

Mario Castelnuovo-Tedesco
geb. 1895
LA GUARDA CUYDADOSA,
CAPRICCIO NACH CERVANTES

Sylvano Bussotti
geb. 1931
"ULTIMA RARA?" — POP SONG (1969)
FÜR VOCE HUMANA UND GUITARRE
Siegfried Behrend gewidmet

Pause

Georg Friedrich Händel
1685—1759
TÄNZE FÜR GUITARREN-ENSEMBLE
arr. Siegfried Behrend

Paul Hindemith
1895—1963
RONDO FÜR GUITARREN 1925

Siegfried Behrend
DANZA MORA I UND II

Siegfried Behrend
DREI SPANISCHE TÄNZE
Zorongo-Por Siguiriyas-Alegrias

ARIRANG
Koreanisches Volkslied
arr. Siegfried Behrend

Gitarre : "Weissgerber"

프 로 그 램

1971. 9 . 8 일 낮 3 시

직프리트 베렌트 기 타

클라우디아 노 래

한국 기타리스트 및 육삼인원 찬조출연

바 하 (1685~1750) 류트 組曲 第 1 番 팻사조, 프레스토, 사라반드, 부레

쑤 르 (1778~1839) 魔笛 모차르트 作品 9 의 主題와 變奏

파가니니 (1782~1840) 쏘나타 C長調,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빌라로보드 (1887~1959) 前奏曲과 練習曲

카스텔누오보-테더스코 (1895출생) 라 파르다 구이다도사 (세르반테스 奇想曲)

보소티 (1931출생) 울티마 라라? (베렌트에게 作曲)

休 息

헨 델 (1685~1759) 기타 三重奏 舞曲

힌데밀 (1895~1963) 기타 三重奏 론도

베렌트 (1933출생) 무어 女人의 춤

베렌트 (1933출생) 3 개의 스페인 舞曲, 조롱고, 포르시기라스, 알레그리아스

연주악기 : 바이스게르버

演奏曲 解説

류트組曲 第1番 E短調 (바 하)

류트는 13~16世紀에 있었던 큰 만들린모양의 10絃樂器이다. 한때는 르네상스音樂의 中心역할도 했으며 기타의 前身이라 할수있다. 偉大한 바하는 류트를 위해 組曲 E短調등 6曲을 남겼다. 1번은 느린 前奏曲으로 單聲의 主題가 류트다운 提示部를 이루고 있으며 프레스토는 前奏曲 後半의 빠른 部分으로 多聲과 遁走形式으로 바하音樂의 特性이 잘 나타나 있다.

사라반드와 부레도 이 組曲의 一部分인데 舞曲의 一種으로서 器樂曲으로 된것이다.

魔 笛 모차르트-쑨르

歴史的으로 기타가 가장 華麗한 黄金期를 맞이한 18世紀末에 스페인의 모차르트라고 불려졌고, 쑨르는 歐羅巴 第一의 기타 演奏家요 作曲家였다. 모차르트 作品 9番 마술피리를 主題로 한것이며 世界大演奏家들에 依해 많이 연주된다.

前奏曲 안단테 라르고는 흔히 省略하고 主題인 안단테 모데라토와 다섯개의 화려한 變奏曲으로 펼쳐진다.

前奏曲과 練習曲 (에토르 빌라로보스)

빌라로보스는 브라질의 現代作曲家, 20世紀의 바하라는 別名을 갖었다. 드뷔시의 영향을 받았으며 作曲, 演奏, 指揮에도 뛰어난 天才였다. 그의 기타曲 50餘曲中 12個의 練習曲과 5個의 前奏曲은 技巧와 藝術이 한데 結合된 特히 有名한 曲이다.

기타 三重奏를 爲한 론도 (파울 힌데밀)

멘델스존과 제클레스에게 바이얼린과 作曲을 배운 獨逸胎生の 힌데밀은 20世紀音樂을 代表한 人中의 하나이다.

그는 비올라의 大家였으며 各種樂器를 爲해 作曲을 試圖했었다.
 이곡은 1925年에 기타를 爲한 間奏曲으로 作曲되었으며 1930年 베를린
 에서 열린 新音樂五日祝祭典때 처음으로 演奏됐었다.
 베렌트가 編曲한 한델의 舞曲과 함께 韓國기타리스트 및 워크샵 人員
 들과 協演한다.

세 개의 西班牙 舞曲(베렌트)

베렌트는 그의 깊은 音樂性과 기타의 華麗한 技巧뿐만아니라 作曲의
 天才이다.

前古典부터 現代, 前衛音樂까지 幅넓은 1,000餘曲의 作品을 썼거나 編
 曲하였다.

베렌트의 野心은 特別 全世界의 民謠나 民俗音樂들을 集大成하려는데
 있는것 같다.

또, 그의 音樂의 特性은 세고비아처럼 기타의 純粹한 아름다운 音色
 뿐만아니라, 그밖에 모든것까지도 素材가 되고 있다는 点이다.

(解説 姜佑植)



베렌트 三次 來韓演奏

다이아몬드 絃樂器製作所

●手製高級演奏用●

기타, 기타로네, 만돌린.

嚴 相 玉

(1965년 베렌트교수에게 기증)

54-4569

ZWEITES KONZERT, 8. SEPTEMBER 1971, 19 UHR

SIEGFRIED BEHREND, Gitarre
SIEGFRIED FINK, Schlagzeug
BELINA, voce cantata
CLAUDIA BRODZINSKA, voce humana

Siegfried Behrend
MITTELALTERLICHE TÄNZE FÜR GUITARRE UND SCHLAGZEUG

Giacomo Gorzanis
1525—1575
BALLETO FÜR GUITARRE UND SCHLAGZEUG

Jean-Baptiste Besard
1567—1625
BRANLE UND BRANLE GAY
FÜR GUITARRE UND FINGERCYMBEL

Don Luys Milan
1500—1561
ZWEI PAVANEN UND FANTASIA
FÜR GUITARRE UND CASTAGNETTEN

Hans Newsidler
1508—1563
DREI DEUTSCHE TÄNZE FÜR GUITARRE UND SCHLAGZEUG

Wascha mesa
Huppff auff
Gassenhawer

Volkslieder der Welt,
gesammelt und bearbeitet von Siegfried Behrend
LIEBESLIED aus Polen
TROIKA, Volkslied aus Russland
DAS LIED VON DER MUTTER aus Galizien
NINA BOBO, Wiegenlied aus Indonesien
DJINGLI NONA, Volkslied aus Malaya
ARIRANG, Volkslied aus Korea

Siegfried Behrend
DREI SPANISCHE TÄNZE
Zorongo-For Siguiriyas-Alegrias

Pause

Karlheinz Stockhausen
geb. 1928
ZYKLUS FÜR EINEN SCHLAGZEUGER (1959)

Günther Becker
geb. 1924
METATHESIS FÜR GUITARRE (1964)
Siegfried Behrend gewidmet

Siegfried Behrend
XENOGRAPHIE FÜR GUITARRE, SCHLAGZEUG
UND VOCE HUMANA (1969)

프 로 그 램 2

1971. 9. 8 일 밤 7 시

직프리트 베렌트 : 기 타

직프리트 핑크 : 타악기

벨리나 : 칸타타

브로친스카 폴라우디아 : 노 래

베렌트 (1933 출생) 기타와 打樂器를 爲한 中世紀風의 舞曲

고르차니스 (1525~1575) 발레트

브자르 (1567~1625) 브란레 놀이

루이스 밀란 (1500~1561) 파반과 판타지아

노이지둘러 (1508~1563) 3 개의 독일 무곡

(베렌트 역음) 世界의 民謠 아리랑 外

베렌트, 3 개의 西班牙 舞曲, 조봉고, 포르시기라스, 알레그리아스

休 息

스톡 하우스 (1928 출생) 打樂器 獨奏 치클루스 (1959)

귄터 벡커 (1924 출생) 베렌트에게 作曲한 메타테지스 (1964)

베렌트 : 기타 打樂器 聲樂의 제노그라피 (1969)

演奏解說

中世紀風の舞曲 (베렌트)

베렌트의 기타曲을 打樂器와의 앙상블로 만든 것이다. 바이에르 農夫의 춤 : 그레고리音樂風의 4 拍子曲, 로젠버크의 춤 : 4 拍子曲, 和音과 旋律이 長調性을 띤다. 아이클딩거城의 춤 : 長調性이 뚜렷해진 3 拍子曲, 며갈나무골의 밤아춤 : 3 拍子, 高聲部와 低聲部の 對話形式이 나온다. 갈대마을의 춤 : 旋律的 短音階와 變調性을 갖은 3 拍子 舞曲. 로젠버크의 吟遊詩人춤 : 音階的 旋律, 變調性 트릴 등의 器樂的 技巧가 든것으로 차츰 복잡해진 過程을 한눈으로 볼수있다.

타악기 독주자를 위한 치클루스 (스톡하우젠)

이는 1959年 크라니히쉬타이너의 打樂器 音樂競演大會에 指定曲 으로 作曲되었으며 13個의 打樂器가 登場한다. 協和音과 不協和音의 均衡과 調和, 各 打樂器의 音色의 餘韻과 스케일로서 和聲의 機能을 주고있다. 原曲의 固定된 樂想에 即興的要素의 融和도 試圖할수 있다.

人事말

베렌트교수와 핑크교수일행을 맞으며 單純한 리듬樂器로만 認識되고 取扱되어오던 打樂器가 近來에 와서는 高度로 發達된 奇拔한 奏法으로 各가지 變化無雙한 音樂과 音色을 追求하게 되므로서 純全히 打樂器만에 依한 앙상블의 世界를 훌륭히 構築하고 있다.

勿論 打樂器의 使命은 리듬演奏에 있으나 그音樂과 音力과 音色의 伸縮性과 美學的 含蓄性을 巧妙히 操作한 앙상블은 既存의 다른 앙상블과 比較하여 거의 同等한 音樂的意義를 感知할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來韓하는 작프리트 핑크교수는 그의 세미나르나 演奏를 통해서 打樂器가 지니고 있는 幅 넓고도 多角的인

며 音樂的인 表現方法과 나아가서 그 앙상블이 追求할수 있는 藝術的인 可能性에 對하여 많은것을 알려줄 것을 期待하는 바이다.

그리고 同時에 同行하는 기타리스트 베렌트교수와 그의 夫人인 가수 클라우디아 브로진스카와 民요 가수 벨리나등과 더불어 打樂器 合奏 외에 協演을 通하여 또다른 面에서의 각가지 興味로운 可能性을 提示 하므로서 우리가 發展해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刺戟을 주게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는 바이다.

市樂專任指揮者

鄭 澈 東

人 事 말

베렌트의 연주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기타에 관한 한 “불가능”을 모르는 초인적인 연주자로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차카노어 차발레타가 하프를, 모리스 앙드레가 트럼펫을, 지크프리트 팔츠이 첼로를 닮듯 그의 기타를 다루고 있다. 그의 손에 잡힌 기타는 작곡가, 특히 현대 작곡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의 완전부절한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베렌트가 1965년 이래 3번째로 다시 한국을 찾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지금까지 2회에 걸친 방한연주에서 그가 한국 기타주자 및 애호가들에게서 받은 열렬하고 충실에서 우러나오는 환영 및 그들의 높은 연주능력에 대한 감동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방한에는 기타연주회외에 한국의 기타주자를 위한 단기 워크샵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1971년도 베렌트 프로그램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우선 그 연주는 16세기 초 라우테타블라투어에서 최근의 실바노 부삿티 및 쾨터 빅커에 이르는 근 500년간의 기타연주사를 재연시킬 것이다. 그는 또한 클라우디아 브로친스카, 벨리나 및 독일 타악기의 권위자 쾨크교수와와의 협연을 통해 인간의 목소리와 한국에서는 초연일 기타 및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형식 작품과의 앙상블도 소개할 것이다. (그중에는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의 음악박사학위 곡인 “타악기를 위한 연속곡”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연주회 자체는 하나의 부수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즉 더 중요한 행사는 베렌트가 쾨크교수와 행할 기타 및 타악기에 관한 실습강연일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이 연주회를 성사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주신 많은 관계인사들, 특히 한국클래식기타인협회 및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헌신적으로 모든 세밀한 준비를 맡아주신 한국클래식기타인협회 부회장 강우석박사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준 이 연주회에 참석하신 모든 기타애호가들에게도 중심의 감사들 드리는 바이다.

주한 독일 문화원
원장 한스 살만



우리들의多情한 벗이요, 기타의 世界的大家인 직프리트 베렌트 教授를 다시 맞게 된것을 無限히 기쁘게 生贊하며 眞心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갖는 이번 演奏 및 워크샵으로 韓國의 기타音樂은 劑期的인 기쁨이 마련될 것을 確信하면서 오늘 이 舞宴을 周旋하여주시신 獨逸文化院長 한스 살만氏에게 深甚한 敬意와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의 演奏會를 통하여 韓獨 兩國民의 友誼와 사랑이 더욱 깊게 될것을 기쁘게 生贊하며 水陸萬里 旣 旅路에 健康과 榮光이 베렌트씨 一行에게 같이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韓國클래식기타音樂人協會長

李 應 宙

音樂人



세고비아 기타

藝術的 音質로 改良 韓國唯一의 文敎部長官賞受賞
 演奏用 高級 手製 國內外 演奏家들의 好評
 클래식 기타 韓國클래식기타 音樂人協會
 전기 기타 의 推薦作品.
 만돌린

